불교 동요악보집 '연꽃들의 노래'

유익상씨 88곡 수록

◇유익상씨

불교동요 반주와 합창곡을 담은 악보집 〈연꽃들의 합창〉이 발간됐다.

수원포교당 가릉빈가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지휘를 맡고 있는 유익상씨가 최근 펴낸 이 합창곡집에는, 유씨가 2년여 동안 작업한 88곡의 어린이 불교 동요가 들어있다. 피아노 반주곡 49곡과 합창곡 39곡이 수록돼 있으며, 분량도 웬만한 단행본에 해당하는 300여쪽에 달한다. 그동안 어린이 동요곡집이 나온 적은 몇 번 있었지만 피아노 반주 악보까지 곁들인 악보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여년 간 어린이 합창을 지도하고 불교 동요를 작곡해 온 유 씨는 "전국에 12개 정도의 불교 어린이 합창단이 있지만 막상 연습할만한 교재가 마땅치 않다"며 "합창단 연습이나 법회에서의 찬불가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 불자들에게 좋은 음악교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02)725-7527 권형진 기자

성보박물관 개관 14곳 공사진행 14곳

불교문화 포교공간으로

직지사 고승진영전 하루 3백명씩 관람
통도사 사리장엄구전 전시기간 연장 '성황'

학예연구실 설치 등 인력·재정 지원 숙제

사찰 성보박물관이 특색있는 기획전을 통해 불교문화를 전파하는 산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난 10월 1일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300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 경북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의 고승진영전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여름 경남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렸던 사리장엄구 특별전도 당초 8월말로 계획했던 전시 기간을 연장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규모나 내용면에서 국내 최대임을 자랑하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불화 전문 박물관으로 이름이 높다. 해마다 두 번씩 개최하는 괘불 특별전은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괘불을 통해 불교회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성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월정사, 수덕사, 대흥사, 동화사, 통도사, 직지사 등 전국적으로 14곳에 이른다. 25개 본사급 사찰 가운데는 8곳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용주사 마곡사 해인사 등 10여 군데가 개관 준비중이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말사급 사찰 중에도 표충사, 부석사, 옥천사, 기림사 등 6개 사찰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오어사, 수타사, 대원사, 도갑사 등에서도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성보박물관은 해당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서부터 인근 사암에서 수집·정리한 유물을 한데 모은 곳 등 그 규모와 내용도 다양하다. 특히 보존문제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중요 성보문화재도 다수 전시되고 있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지역 불교문화 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공적인 운영이 아직은 몇몇 박물관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성보박물관이 기획 전시는커녕 상설 전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빈번한 도난사건과 유물 훼손에 따른 관리 보존을 위해 본사급 사찰을 중심으로 박물관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이후 운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세우고 보자'는 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재정과 전문인력 확보가 해결되지 않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4개 성보박물관 가운데 학예연구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통도사, 직지사, 월정사, 송광사, 수덕사, 대흥사, 동화사 등 7곳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은 직지사가 개최하고 있는 고승진영 특별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96년 개관한 직지사 성보박물관이 4년만에 처음으로 기획전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99년 학예연구사 2명을 채용한 데 힘입은바 크다.

재정면에서도 박물관 건립 이후 지속적인 유물의 보존과 연구, 보안장치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사립박물관으로 등록돼 있는 사찰 성보박물관의 특성상 정부의 예산 지원을 따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박물관 소재구 학예연구사는 "성보박물관 건립과 운영의 주체인 사찰이 박물관 건립에 앞서 인적·재정적 지원 역량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맞게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같은 토대 위에 저마다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기획과 전시로 지역민과 불자들에게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지난 2년간 놀랄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룬 성보박물관은 불교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사진은 직지사 성보박물관 고승진영 특별전.

"禪의 세계, 그림으로 초대합니다"

선화전문 '담원갤러리' 여는 김창배씨

'전통의 거리' 인사동에 선화(禪畵)만을 다루는 상설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간혹 선화를 주제로 한 개인전이나 특별전이 열리기도 하지만 일년 내내 선화를 전시하는 공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동 네거리에 자리잡은 선화 전문 갤러리인 '담원 갤러리'(관장 김창배)가 지난 10월 28일 개관식을 갖고 첫 번째 기획전에 들어갔다.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선화를 보면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한국의 달마〉 저자이자 선화만 그려온 선화가이기도 한 김창배(45) 관장의 최근작 33점을 선보이고 있다.

김 관장은 "역사탐방로 조성 등으로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문화의 거리 인사동에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며 "선화의 세계를 널리 알리고 보시와 포교차원에서 상설 전시관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1차 기획전이 끝나면 곧이어 '선승 기획 초대전'이 열린다. 현재 우리 화단이나 스님 가운데 역량과 작품성을 겸비한 작가 10여 명을 초대해 선화, 목공예, 판화 등을 전시한다. 선화로 유명한 수안스님, 동승의 원성스님, 목공예가 박찬수, 판화가 이철수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보시와 포교 차원에서 문을 연 만큼 선화를 하는 다른 작가들을 위해서도 전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다 선화의 매력에 빠져 15년간 선화를 그려왔다는 김 관장은 "그림을 통해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선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또 내년 경 선화를 주제로 한 그림, 조각, 도자기 등을 모아 경기도 화성 근처에 선화 전문 미술관 및 선화학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36-7445 권형진 기자

방송 볼거리 EBS '최완수의 우리미술 바로보기'

불상·불탑 왜 어떻게 만들었나?

내년 3월까지 수요일마다

불상과 불탑을 알면 불교문화가 보인다.

사찰에 들어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불상과 불탑이다. 그러면 불상과 불탑은 언제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을까.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실장이 그 역사를 소개한다. 한국 근대 미술사와 불교 미술을 전공한 그는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3월 초까지 EBS '최완수의 우리미술 바로보기'(수요일 밤 9시20분)에서 30여년간 치열한 연구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체득한 우리 미술의 역사와 진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첫 강의에서 "불상이 우리 미술사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불교미술의 꽃이었던 불상에서부터 출발해 회화, 건축, 서화 등 우리 미술 문화의 전반에 걸친 장르를 집중 조명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었다"고 출연 동기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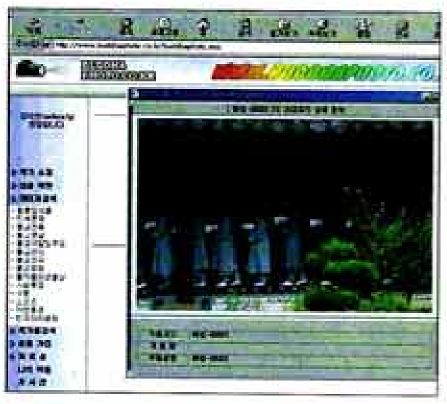
한 점의 미술품에서도 시대 전체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는 25일 방송된 '부처없는 불교미술의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초기 불상 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도의 불교 미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에서 불상이 처음 출현한 시기를 AD 1세기로 볼 때 그 이전부터 6백년 동안에는 동물상과 부처의 일대기를 그린 상징물로 대치되어 불상이 없는 시기가 계속 됐다며, 불상의 부재는 당시가 아소카 왕조의 절대 왕권시대 였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완수실장이 EBS-TV '최완수의…'에서 인도의 불상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다.

방형찬PD는 "박물관 전시장 속의 박제된 표본이 되어버린 우리 미술품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싶었다"며 "국내 미술사 분야의 권위자인 최완수 선생의 해박한 설명은 우리 미술의 진가와 우수성을 안방에서 편안히 들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최실장의 강의는 '인도의 불상' '중국미술' '우리나라의 불상' '고구려의 고분벽화' '조선시대의 회화' '조선시대 풍속화' '조선시대의 서화 및 문인화' 등 20회에 걸쳐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사이버 문화 붓다포토

불교, 사진예술로 승화

사찰 대웅전 처마 밑에 내려앉은 가을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만끽해 보자. 불교사진작가 김태환씨의 홈페이지 '붓다포토'(www.buddhaphoto.co.kr)를 방문하면 예술로 승화된 불교를 만날 수 있다.

사각의 사진 속에서 피어나는 불교의 표정은 어떤 것일까. 김태환씨가 선보이는 불교사진의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재)뿐만 아니라 포탈라궁 등 외국 사찰의 웅장한 모습도 접할 수 있다.

흠이 있다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 그 외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붓다포토에서 제공하는 사진은 불교건축 외에도 다양하다. 대웅전 문살에 피어난 꽃잎 하나 하나가 생생하게 사진 속에서 살아움직인다. 석탑 및 부도의 단아함, 영산재·다비식 등 불교의식, 불교조각, 회화, 불자 생활상, 사찰풍경 등 다채롭기 그지없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붓다포토에서 사진을 함부로 다운받으면 큰일난다. 불법(不法)이기 때문. 돈을 주고 사도록 쇼핑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곳이다.

앞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문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독특한 테마사진 갤러리로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101 - 교리·입문편	102 - 교리·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202 - 생활불교편	301 - 선(禪)편	302 - 선(禪)편	303 - 선(禪)편	401 - 문학편	501 - 문화·학술편	502 - 문화·학술편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준다.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때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조선 시대 선사 41인의 선시 모음집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법수로 배우는 불교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참선요지(參禪要旨)	방편개시(方便開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허공의 딸꾹질	불성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반형 242쪽 / 값 5500원	이제열 지음 B6 반형 196쪽 값 4800원	조형 스님 편역 B6 반형 176쪽 값 4000원	혜능 스님 엮음 B6 반형 330쪽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반형 278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반형 278쪽 / 값 5500원	한형조 지음 B6 반형 336쪽 값 6000원	이종찬 지음 B6 반형 282쪽 값 5000원	전치수 지음 B6 반형 196쪽 값 4500원	김종서 지음 B6 반형 19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